

국립천문대

建設에 置重한 한해

小白山의 大氣條件 研究로 관측요건 수립

研究員의 海外研修로 資質向上

1978年은 國立天文臺로서는 가장 커다란 수확을 거두었던 한해였다. 本格的인 天體觀測研究의 터전이 될 소백산 天體觀測所가 지난 9월 준공식을 갖고 개관을 본 것이다. 해발 1,390m 小白山 第2蓮花峯에 각종 현대시설을 갖춘 천체 관측소가 완성되어 천문대 發足, 5년만에 자체 관측소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 관측소에는 20cm 태양망원경과 10만볼에 상당하는 60cm 반사망원경을 비롯해서 각종 최신천체관측기기가 보유되어 있어 천체관측연구에 활력소로 등장하는 한편 관측소 준공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천체관측을 할수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는것 또한 관측소 준공이 갖는 가장 큰 意義라 하겠다. 특히 관측시설 및 장비의 이용을 일반인에게도 허용할 방침이어서 보다 활발한 천체관측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년에는 시설확장 못지않게 研究員들의 資質向上에 힘쓴 해이기도하다.

두명의 研究員이 호주와 일본에서 海外研修를 마치고 돌아와 「관측기기의 제작 및 활용연구」와 「변광성, 적외선 관측에 관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게 되리라고 본다. 또 조만간 두명의 研究員이 더 파견될 계획이어서 이들이 돌아오면 천체 관측 연구가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년 한해는 관측소 준공이라는 큰 일은 해냈지만 뚜렷한 연구업적은 없었다. 閔英基 천문대장은 『建設에 치중하다보니 커다란 研究業績을 낼 수 없었다』고 아쉬워하면서 『내년도에는 本格的인 연구를 수행해서 우리의 研究結果를 外國에서 발표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겠다』고 의욕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금년에 내놓을 만한 연구가 아주 없었

던 것은 아니다. 소백산의 大氣條件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서 大氣中の 質量이라든가 水分含有量을 측정했다. 이 結果 소백산 大氣中の 水分 함유량은 여름에는 상당히 높아서 80% 이상을 웃도는 반면 겨울은 30%이하로 떨어져 여름보다는 겨울의 관측조건이 양호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특히 赤外線觀測은 水分이 없어야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赤外線觀測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적외선관측에 필요한 赤外線 탐지장치를 外國에서 도입해와 반사망원경에 부착하여 天體에서 오는 적외선을 관측하여 별의 초기상태 적외선강도 분석등을 연구하게 된다.

『세계변광성관측협회에 우리가 觀測한 資料를 제시해서 세계관측자료 수집에 한몫을 하는 변광성관측연구에 注力할 것』이라고 밝히는 閔대장은 本格的인 天體觀測研究業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힘쓰는 한편 좋은 연구업적을 내도록 노력할 것을 밝힌다.

특히 1978년은 비교적 특수한 天體現象이 많았던 해이다. 土星이 火星과 土星이 金星과 근접하는 현상을 보였으며 肉眼으로도 보이는 상당히 밝은 브래드필드라는 혜성이 발견되었고 日蝕, 月蝕現象등 다양한 천체의 변화를 접할 기회가 많았다. 내년도에도 6개의 주기혜성이 태양을 향해 접근하게 되며 金星과 火星이 水星과 木星이 근접하는 현상을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개기일식과 금환일식이 있겠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으며, 다만 부분월식과 개기월식을 보게된다. 이와같은 천체현상의 변화도 국립천문대의 활발한 연구도 우주의 신비를 한꺼풀씩 벗겨나갈수 있을 것이다.